

단 1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포용적 교육사회를 실현하려면^{1), 2)}

윤철경 · 박예슬 · 김언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I 서론

심각한 인구절벽이 예상되면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제안되고 있다. 출산장려금·아동수당·임신/출산에 따른 불이익 제거를 넘어서 임신여성공무원에 대한 가산점 제안까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선심성 정책이 한국사회의 예상되는 인구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의구심이 든다. 출산율 저하로 일찍이 인구문제를 겪은 서구 선진국의 경험을 볼 때 이민정책이 아마 현실적 돌파구가 될 가능성이 많다. 기업은 좋은 조건의 노동력을 얻기 위해, 개인은 좋은 조건의 일자리와 생활환경을 위해 국경을 넘나들며 움직이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일자리를 얻고 삶의 보금자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을 수용하는 이민정책을 확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다문화 학생에 대한 포용적 교육사회정책이 주요 교육의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높은 인구증가율과 교육열, 경쟁을 통한 선발과 계층 상승이라는 성공신화, 이와 결합된 한국교육의 프레임은 언제까지 작동할 것인가? 풍부한 인구 자원이 있었기에 가열찬 경쟁을 통해 뽑아 쓰고 버려도 질 좋은 노동력이 풍부하던 시대는 끝이 났다. 한국의 교실은 무기력하다.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잠을 자고 폭력을 놀이로 즐기는 일부 학생들의 억압이 상존한다. 이 학생들을 어찌 할 것인가? 우리는 먼저 교실개혁과 더불어 단 1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으려는 교육사회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영국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정책사례는 이러한 점에서 유용하다

1) 본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교육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2) 본고의 II~IV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설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 (2018). 2018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주요 선진국 정책탐방 국외연수 결과보고서와 윤철경 (2017). 국외출장복명서를 요약·정리한 내용임.

II 잉글랜드의 학업중단예방체계 : 학생의 문제에 초점을 둔 다단계 지원체계

영국에는 1996년 제정한 교육법(Education Act 1996)을 통해 5세부터 16세 의무교육 기간에 있는 청소년들이 질병이나 퇴학 등의 이유로 학교에 재학하지 못할 경우 지방정부나 지방교육청이 학교나 다른 기관에서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여 의무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학교에 SENco(Special Education Needs Co-ordinator)를 배치하여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2차적으로는 지방당국이 각 구마다 설치·운영하고 있는 PRU(Pupil Referral Unit)로 의뢰한다. PRU는 특별히 더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전문인력들이 상주하고 있으며 학교, 지역사회와의 다른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성과를 내고 있다.

1. PRU(Pupil Referral Unit)

잉글랜드의 대표적인 학업중단예방체계는 PRU(Pupil Referral Unit)이다. PRU는 일반학교 혹은 특수학교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한 위탁교육기관이다. 모든 지역교육청(Local Education Authority, LEA)은 모든 의무교육 대상자를 교육시킬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부적응 학생 뿐만 아니라 특정 기간 동안 질병 혹은 퇴학으로 인하여 학교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의 교육도 PRU에서 담당하고 있다.

런던의 경우 32개 자치구를 갖고 있는데 구별로 초등(5~11세), 중등(12~16세)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각 구청은 퇴학위기 학생 등에게 PRU에서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각 구청은 학교별로 의뢰할 PRU 학생 수를 예측해서 학교예산에서 학생 1인당 4,000파운드(한화 약 580만 원)를 미리 확보해 둔다.

런던의 윈즈워스구는 규모가 비교적 큰 편으로 초등, 중등 PRU 외에 치료형 PRU가 더 있다. 초등 PRU는 관내 62개 초등학교 학생이 대상이다. 윈즈워스구 초등 PRU의 직원은 28명이며 학생통학을 지원하는 운전사, 보조교사, 교사, 학습 멘토, 가정지원 사회복지사, 교장, 교감 외에 치료를 담당하는 정신보건사, 치료상담사, 가족체계치료사, 교육심리치료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 담당자 등이 있다.

학생은 연간 120명 정도를 수용하며 연간 3학기를 운영하고 보통 2학기를 마친 후 복교를 한다. 총 4개의 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1반에 4개 그룹, 2반에 4개 그룹, 3반에 2개 그룹과 개인, 4반에는 2개 그룹과 개인이 있음) 그룹 당 최대 6명이 속한다. 한 그룹에는 1명의 교사와 1~2명의 보조교사가 배치된다. 하루 기준으로 오전/오후 각 18~20명씩 총 36~40명 정도가 오며, 교사는 5명이 근무하고 있다. 학생들은 주 2회 방문으로 오전반, 오후반을 선택할 수 있으며, 방문횟수는 학생의 필요에 따라 결정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기초학습능력과 관계적·정서적 문제이며 이를 위한 환경과 시설, 인력이 제공되고 있다. 학생을 그룹으로 편성할 지, 일대일로 지도할 지는 학생의 상태에 따라 결정한다.

2. SENco(Special Education Needs Co-ordinator)

SENco는 특별한 교육적 필요를 갖고 있는 학생들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전문인력이다. 영국 교육법에 의해 정해진 '특별교육필요정책'을 매일 학교 현장에서 실현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될수있다. 런던 윈즈워스구에는 62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1개 교당 1명 씩 총 62명의 SENco가 있다.

SENco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교육심리학적 관점에서 학생들을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외부지원을 해주고 문제가 있는 학생들의 가정을 지원하는 일이다. 그 다음으로는 문제가 있는 학생을 초기에 알아차리는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은 학생들이 보이는 병적인 신드롬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 이유는 나중에는 학력격차가 많이 생기는데 초기에 지원하면 격차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학생들에게 많이 영향을 주는 것이 가정환경이기 때문에 가정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영향을 주기도 한다.

SENco는 문제 있는 아동을 발견하면 1차적으로 학교 내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 뒤에 PRU에 Referral Form을 보내 지원요청을 한다. 이 서류에는 아동의 고유번호(Unique Pupil Number, UPN), 아동의 이상행동, 이 행동에 대해 학교가 취한 조치, 교육심리학과 일반 의사의 면담결과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평가가 기록되며 부모의 자녀 행동에 대한 반응, 자녀가 필요로 하는 것, SENco의 의견, 학업성취도 등이 기록되어 있다.

3. PRU와 SENco, EHCP, CAMHS의 협업

이 Referral Form이 접수되면 PRU는 교사들을 학교에 보내 학생을 관찰하도록 한다. 학교시스템이 문제인 경우에는 학교에 문제제기를 한다. PRU에서 학생을 지원하도록 결정되면 어떠한 형태로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기본적으로 가족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학생을 지원할 수 없다. 부모가 자녀를 PRU에 보내는 것을 거절한다면 PRU 교사가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을 돕기도 한다. 이후 6주 정도가 지난 후 부모와 다시 면담하여 PRU로 데리고 온다. 학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으로는 교사와 보조교사를 학교에 보내거나 조언이나 컨설팅 서비스를 하고 있다. 학생들이 사회일원으로써 자라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SENco

- PRU는 SENco를 지원한다. SENco가 사회적·심리적·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원한다. 폭력성, 은둔형 외톨이, 우울증, ADHD 등 심리·정신적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일반학생들과 장벽이 생길 수 있는데 이 장벽이 무엇인지 빨리 발견해서 지원해 주도록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며 컨설팅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2~3개의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SENco가 이 학생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을 관련 선생님들과 공유하며 실시하도록 한다.

▶ 지방정부의 EHCP(Education, Health Care Plan) 프로그램

- 특별한 요구가 있는 학생들에 대해 PRU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은 학생들은 지방정부에서 정한 EHCP(Education, Health Care Plan) 프로그램으로 넘어가게 된다. EHCP 프로그램은 사회적 보장, 교육 전체적인 분야에서 특별한 요구를 가진 학생들, 청소년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 지원을 해주는 전체 프로그램이다. 0~25세까지 적용이 가능하며 이 혜택을 보는 학생들은 성장과 더불어 프로그램도 변화하도록 되어있다. EHCP는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것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기본으로 실질적으로 진단하고 이것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EHCP 기록부는 25살 때까지 계속되며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적도록 되어 있고 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Services (CAMHS)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 조직으로써, 아동들이 정신적인 문제가 발현하기 이전에 조기에 진단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이다. 심리전문가, 의사, 정신과 의사, 가족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병원에서 일을 하지만 학교에 상주하며 일하는 경우도 많다. PRU에는 이러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상주하는 편이다.
- 개입은 4단계로 이루어지는 데 1단계는 초기개입이 가능한 수준이며 4단계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단계이다. CAMHS팀은 심리학자 2명, 가족전문가 1명이 팀을 이루는데 기본적으로 PRU와 일을 하며 때로는 PRU에 소속된 학교와도 협업을 한다. 학생의 정신건강상태를 평가하고 학생이 지닌 위험인자를 파악한 후 여러 가지 치료계획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다. 인지행동치료, 감정조절활동, 체계적 가족치료 등을 실시한다. 특징적인 것은 부모그룹활동을 지원하여 부모들끼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족 개입이 중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4. UPN(Unique Pupil Number, 고유번호)

잉글랜드 학생은 모두 고유번호(Unique Pupil Number)를 갖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 시 부여받는다. 이 번호는 학생의 교육이동상황을 점검하면서 학업중단을 촘촘히 예방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학생의 이력과 교육적 도움, 서비스 상황 등을 기재하면 고유번호를 통해 그 학생에 대한 총체적인 파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III 스코틀랜드의 학업중단예방체계: 평등교육이념에 따른 통합학교와 학교체계를 통한 예방

스코틀랜드의 주요 교육이념은 ‘수월성(Excellence)’과 평등(Equality)’이다. 수월성이란 모든 청소년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성취할 수 있는 교육을 의미하며, 평등이란 빈부 차이, 지역적 차이 없이 모든 청소년이 동등하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이념적 기초 하에 스코틀랜드 교육은 통합학제로 발달되었으며 95%의 학생이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다. 또한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학교에서 포용하는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교육은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학업격차의 해소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 당시부터 생긴 학업격차가 17, 18세가 되면 더 벌어져서 정규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는 학업중단자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에 주목하고 커리큘럼을 개혁하였다. 커리큘럼 개혁의 핵심은 첫째, 커리큘럼의 다양화를 통한 선택권 보장이다. 특히, 중등교육에서는 직업선택뿐 아니라 사회참여, 리더십 등의 다양한 가치를 감안하여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중요시하는 가치를 교육과 연계해서 발견하고 직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였다. 지식보다는 사회성, 팀워크 등 다양한 분야에 통용될 수 있는 지식기반 교육을 강화하게 되었다. 둘째, 국가 표준화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중등학교 때까지 총 4회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여 학습부진 학생에 대해 보다 일찍 개입하고 학생 간 격차 해소에 주력하게 되었다.

통합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스코틀랜드에서는 별도의 위탁교육기관을 운영하기 보다는 학교에서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학교 내 특별학급을 1~2개 정도 운영하여 오전에는 특별학급에서 수업하고 오후에는 소속학급으로 돌아가는 식으로 진행한다. 스코틀랜드 St. Philomena's Primary School의 사례를 보면 교감 2명, 교사 1명이 통합교육에 투입되고 있었다. 4학년 이상인 위기 학생은 매일 오전 교감선생님 교실에 모여 수업한 후 자기 교실로 간다. 교감선생님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위기 학생을 선별하며 그룹 또는 일대일로 학생을 케어한다.

1~3학년의 위기학생은 독립된 학급을 편성하여 한 교사가 담당하고 있다. 힘든 학생들이라 어려운 업무이지만 아직은 헌신적인 교사들이 많아 가능하다고 한다. 공립학교도 평생 전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책임성이 높다.

또 다른 남자 교감 1명은 보다 위기가 심한 학생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 학교는 인근 학교 위기학생까지 함께 보살피는 지역 당국 지정 학교(hands on provision school)이다. 2개 학급에 12명을 수용하고 있었으며 지역 당국이 학생의 교통편과 교사 월급, 운영비 등을 모두 제공하고 있었다. 해당 학생은 담당 직원이 학구 내 보육원, 초·중학교의 마지막 학년을 시찰하고 특별한 필요가 있는 학생을 선발한 후 해당 학생의 부모를 만나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데리고 온다. 보육원이나 인근 초등학교에서 의뢰가 너무 많은 경우엔 지역당국에서 부모배경, 종교 등 11개 범주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하고 있다.

IV 학교 안과 밖을 연결하는 데이터 허브 : 모든 청소년에게 학습 또는 직업훈련 보장

스코틀랜드의 의무교육은 16세까지이다. 초등교육이 5세에서 12세(7년), 중등교육이 12세부터 15세(4년)이다. 대학까지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의무교육의 의미는 16세까지는 학교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뜻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16세 이후에도 학교에 남아 대학진학 준비를 하거나 직업교육을 받는다. 그런데 이 시기에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들이 있고 스코틀랜드 정부는 이들의 무업화(NEET화)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에 힘을 쏟고 있다.

먼저 이들이 학교를 떠나는 이유에 주목하고 이들에게 '더 많은 선택과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16+ 학습선택권'정책, 학교에서 이들을 놓치면 소재 파악이 어렵고 적절한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놓치지 않고자 하는 '16+데이터 허브', 청소년들이 사회의 필요에 맞게 진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기관 SDS가 있으며 이 기관을 통해 32개 지자체(교육당국 포함)에 자금 및 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도 스코틀랜드의 16+ 이후 정책은 계속 개발 중이며 'Next Step'이라는 실제 현실에 대한 적합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이 새로 추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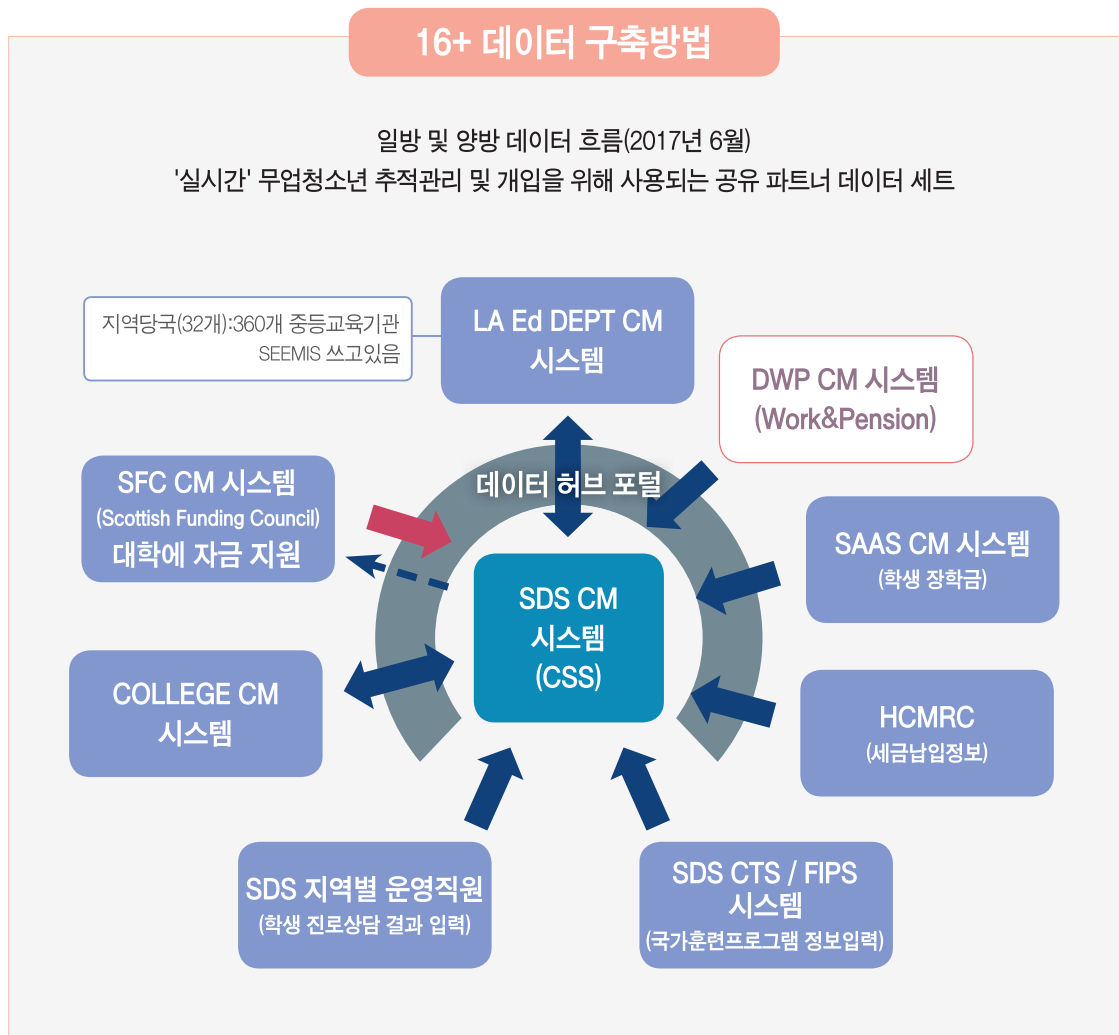
▶ SDS와 16+ Data Hub

스코틀랜드 직업능력개발원(Skills Development Scotland, 이하 SDS)은 스코틀랜드 정부의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직업훈련의 전달체계로, 16~19세의 청소년과 학교, 고용주를 대상으로 진로 및 직업훈련 정책을 전달하고 있다.

한 학생도 놓치지 않기 위한 사회적 노력의 결정체로는 SDS가 관장하고 있는 16+ Data Hub 시스템을 들 수 있다. 16+ Data Hub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안전망으로, 16+ 학습선택권의 일부로 시작되었으며 16~24세(맨 처음 19세였으나 점점 연령 확대)의 청소년들의 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망이다. 15.5세가 되면 교사가 학교시스템(SEEMIS)에 학생의

진로계획 등 상세한 정보를 등록하는데, 이것을 16+ Data Hub에 이관하여 관리하게 된다. 대학, 컬리지, 견습과정,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에 참여하는 22만 명의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다.

2013년 7월 정보공유지원에 관한 법이 통과되면서 지자체 중등교육기관 SEEMIS 정보, 대학의 학생 입학정보, 국가훈련프로그램(SDS) 참여정보, HCMRC(세금납입정보), SAAS(학생 장학금 지원 정보), DWP(전 영국에 걸친 기관으로 Work & Pension) 정보, 스코티시펀딩위원회(자금지원기관)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16+ Data Hub 구축 목적은 16세에서 24세에 이르는 청년층의 진로직업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데이터허브 상에 아무 움직임이 없는 무업 청소년을 발굴하여 해당 청소년을 지원하고자 함이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16+ 학습선택권 정책을

도입하여 16세 이후 전환기에 적절한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데이터를 관리, 추적하여 개입을 강화하는 정책을 실시해 왔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32개 지자체에 ‘더 많은 선택과 기회’ 및 ‘모두를 위한 기회’라는 전용자금을 제공하였다. 전용자금은 무업화 위험이 높은 청소년을 위해 이들의 무업화 방지와 감소를 지원하는 16세 전/후 대상 청소년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활용되며, 지자체 상황에 맞는 맞춤형 NEET 프로그램과 개인별 욕구 충족을 위한 개인별 맞춤 NEET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SDS는 16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직업정책, 훈련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들이 일할 만한 곳, 훈련받을 만한 곳을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다. 또한 산업계에서 필요한 인력을 교육과 관련하여 공급하기 위해 청소년 개인의 관심사와도 맞고 산업계 요구에도 맞는 커리큘럼을 제공·보완하는 과정에 데이터를 제공·활용하고 있다.

▶ 16+ Data Hub를 활용한 통계보고서 발간

SDS의 직원들은 모두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있고, 관련기관에서는 관련담당자들이 SDS 시스템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 SDS 데이터는 거의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어 매우 현장감 있는, 살아있는 데이터이다. 보고서 ‘School leaver’ 는 17, 18세 학생들이 학교를 마친 뒤 3개월째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9개월 뒤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추적한 보고서로 약 5만 5천명의 청소년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2015년에 처음 발간된 이 보고서에는 어느 특정 하루를 지정하여 16~19세 청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2016년에는 특정 하루가 아니라 365일 청년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① 무엇인가 하고 있는 사람(학교 혹은 직장에 속해있는 사람), ②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사람, ③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는 사람(추적이 안 되는 사람)의 총 3개 분류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매년 3월 31일에 보고하고 있다. 1년 동안 청년이 어떤 과정을 지나게 되는지를 추적해보면 4월 1일부터 6월까지의 학교에 있고, 6월 졸업 이후 바로 일자리를 찾았으므로 ‘무엇인가 하고 있는 사람’으로 분류되었다가 9월까지 정규직으로 일을 했지만 해고된 이후에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된다. 다시 대학교를 입학한다면 다시 ‘무엇인가 하고 있는 사람’으로 분류된다. 1년을 종합하였을 때 비중으로 나누어 무엇을 하고 있었던 적이 많다면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본다. 대략 20만 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이러한 추적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16~19세 인구의 91~92%에 달하는 숫자이다.

▶ SDS의 진로직업훈련 프로그램: ‘Apprenticeship’과 ‘NEXT STEP’

지역당국은 SDS의 데이터 허브를 통해 자기 지역의 청소년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SNS 메시지 등을 계속 보내면서 학생들이 무엇인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연락이 닿으면 필요로 하는 파트너기관과 연계하여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무업인 상태에 있을 때 정부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하거나 다양한 형태의 도제교육과 이외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있다.

SDS는 웹(www.myworldofwork.co.uk)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면서 진로지도사를 통해 컨설팅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도움을 요청하러 방문할 수 있는 SDS 사무실, 청소년을 위한 진로지도센터가 스코틀랜드 전역에 75개 설치·운영되고 있다.

SDS는 학교를 통해 12살부터 보편적인 진로교육을 실시하지만 특별히 16세 이후 NEET 가능성이 높은 학생에게는 일대일

지원을 추가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학업중단을 한 이후에도 계속 지원된다. 교사, 가족, 교육관련자들에게는 웹 등을 통해 정보제공 서비스를 한다. 또한 SDS는 학교 등을 통해 다양한 견습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재학생 대상 견습 제도로 주 1회 참여하며 학교를 다니며 일도 배우는 Foundation Apprenticeship과정, 졸업생을 대상으로 기업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Modern Apprenticeship과정, 이 과정은 SDS에서 고용주에게 재정적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고용주들의 참여율이 높다. 또한 대학원생 이상 수준으로 80% 직무교과, 20% 일반교과과정인 Graduate Level of Apprenticeship과정 등 다양한 견습제도를 통해 학생들의 직업훈련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2017년부터는 NEET를 위한 'NEXT STEP'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데이터 허브를 이용하여 학업중단 이후 사회로 진출하지 못한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17, 18세를 대상으로 하지만 취약계층의 경우 25세까지도 지원하고 있다. NEXT STEP의 기본 원칙은 'Contact'이다. 텍스트를 보낼 수도 있고 진로지도사 등이 직접 방문할 수도 있다. 지역마다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지만 매주 일대일, 또는 그룹별 상담지원을 진행해야 한다. 이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또는 훈련, 취업을 하게 된 후에도 목표를 상실하지 않도록 최대 6개월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V 한국의 학업중단예방정책에 대한 시사점

1인당 GNP가 3만 달러이면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입시경쟁, 계층 상승이라는 교육 프레임을 과감히 버리고 다양한 교육과정과 단 1명의 학생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배려하는 포용적 교육사회정책을 추진할 때이며 이것이 우리 사회가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이라는 시대적 도전 앞에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 중 하나가 포용적 국가, 포용적 사회이다. 그것은 교육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다.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교육사회정책은 접근방법에는 차이가 있지만 학교생활에서 뒤처져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일찍부터 개입하는 포용(inclusion) 정책을 실시해 왔다.

아직 우리의 교육현장은 교육의식이 뒤처지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 대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 대안교실 등에 투입되는 예산을 일반교실에 비해 역차별이라고 느끼는 경향까지 있다. 이는 오랜 기간 경쟁과 선발이 교육현장을 주도해 온 탓에 공정의 의미가 객관화된 성적으로 환치되어 있다.

▶ 먼저, 교육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기 위한 법적 제도화가 필요하다.

장애·탈북·다문화 학생에 대한 추가지원은 인정하면서도 가정환경, 개인적 특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공부 못하고 말쑥 피우고 공부에 흥미가 없어 게으른' 학생에 대한 추가지원은 인정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에게도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며 적합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학업격차가 벌어지기 전에 이들에게 필요한 교육, 이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교육복지우선지역사업, Wee Center, 대안교실, 대안교육 위탁 등 과거에 비해 다양한 정책수단들이 동원되고 있지만

프로그램 사업이 많고 학생 개인에 초점을 맞춘 예방체계로서는 촘촘하지 않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입시교육의 가성비 낮은 학생으로 무관심 속에 방치하거나 말썽과 소란을 잠재우기 위해 외부 시설로 격리하는 조치는 적절하지 못하다. 잉글랜드나 스코틀랜드의 정책 수단, UPN 번호, 데이터 허브, 직업능력개발원과 지자체(교육청 포함), 학교와의 연계, 위탁기관의 학생 이동 수단 제공 등을 볼 때 학생 개인을 가운데에 둔 촘촘한 연결체계에 놀라게 된다. 학교에서부터 외부기관 연계까지 학생 개인에 초점을 둔 학교와 교사, 교육청의 책임이 매우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다. 교육청은 지역실정에 맞게 정책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교육부가 할 일은 각 시도교육청이 지역 실정에 맞게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계법(일명, 교육기회보장법)을 제정하고 예산확보를 함과 동시에 유사 사업 예산의 통폐합과 전달체계를 정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학생생활지도 차원에서 접근하는 데서 벗어나서 이들에게 필요한 교육기회 보장 차원에서 접근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중앙차원의 전달체계(일례로, 교육기회보장센터)와 지방의 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며 여기에는 다양한 교육형식(평생교육, 대안교육, 홈스쿨링, 직업훈련, 학교 밖 학습경험 학력인정제 등)을 포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 둘째, 고등학교 단계에서 개인 맞춤형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한국의 교육은 너무 학생들을 학교에 오래 잠가두고 있다. 학업중단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때는 고1이다. 기존 교육과정을 버텨내다가 한계에 다다르는 시기이기도 하다. 의미 없는 학교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학생이 태반이다. 이 시기 학생들에게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직업을 준비해나가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북유럽 국가들의 일반적 모형인 통합학교에서 스코틀랜드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를 정한 후 16세부터는 자신의 진로에 따라 학점을 선택하여 학습한다. SDS는 학교가 산업의 필요, 개인의 요구에 맞춰 진로직업교육을 하도록 돕는 한편, 16~19세 연령대에 학교를 이탈하여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청소년들을 추적하여 직업훈련에 참여하도록 촉진한다. 한 명의 이탈자도 없이 교육 아니면 직업훈련을 받도록 보장하는 청소년보장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고등학교 학점제 도입이 시급하다. 학점제 도입과 더불어 진로직업교육수준과 분야별 학점 선택이 가능하도록 체제화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SDS와 같은 기관이 필요하다. 일부 학교에서는 대안교실을 통해 대안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현장의 실천적 경험은 진로직업 학점제 도입에 귀한 자산이 될 것이다. 학점제의 전면적 도입 이전이라도 대안교실 등을 통해 진로직업교육 과정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지역단위에서 기업, 소상공인 등을 조직하여 학생 대상 견습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일찍이 스코틀랜드 뿐 아니라 독일, 스위스, 스웨덴 등 많은 유럽국가들은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학생들이 자신의 직업진로를 일선 현장과 호흡하며 배우고 취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왔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 뿐 아니라 학교의 50% 이상의 학생들에게 이러한 진로직업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 셋째, 정보공유 및 활용에 관한 법 제정과 통합정보망 구축을 통해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통합 이력관리가 필요하다.

학교를 이탈한 청소년들의 사회적 소재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고 노력이 많이 든다. 2015년 기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 수는 35만 명에 이른다. 만 19~24세 연령까지 포함하면 약 73만 명 이상이 정규 고등학교 중단자로 추산된다.³⁾ 학령기 학업중단 청소년의 중단 이후 5년 간의 경로를 추적 분석한 결과 약 46%는 학업형, 36%는 직업형, 18%는 무업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리고 이 청소년들이 5년 후 자기가 살던 지역에 계속 거주하는 비율은 81%이다.⁴⁾ 즉 절반 정도는 학업을 지속하고 있지만 절반 정도는 안정되지 않은 직업 또는 무업을 전전하고 있다. 학령기 청소년은 학교 밖에 있더라도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아야 한다. 또한 직업훈련을 촉진하기 위한 수당 등 인센티브의 제공도 필요하다. 그러나 정착 이러한 도움을 제공받아야 할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러한 도움에서 소외되기 십상이다. 정보 공유 및 활용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통합정보망을 구축하여 학교를 떠나기 전후로 학생 개인에 대한 정보가 연계되도록 하여 지역당국에서 이를 적극 활용하여 맞춤형 지원을 해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데이터 허브의 구축을 통해 통합이력관리가 가능하고 해당 청소년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중복 지원 등의 예방도 가능하다.

▶ 넷째, 초등교육 단계의 대안교실을 확대하여야 한다.

한국의 경우, 현재 학업중단예방이나 대안교육지원 사업은 주로 중등교육 위주로 실시되고 있다.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조기에 발견하여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초등학교 대안교실을 보다 확대하여야 한다. 초등학교 대안교실이 확대되지 못한 이유는 기초학력보장사업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심리·정서적, 가정적 문제 등을 포함하여 세밀하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학력 보충적 접근을 벗어나 교실 위주의 접근이 더 필요하다. 초등학교 대안교실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특수학급처럼 일반학급보다 학생 수가 적은 대안교실의 설치, 담당교사의 배정 등의 제도화 조치가 필요하다. 저학년은 전담학급, 교통신단이 발달된 도시지역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동거리가 먼 농어촌 지역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학교를 거점으로 한 지원이 더 중시될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전문 인력도 부족하고 외부자원도 부족한 지역일수록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기반으로 한 대안교실 운영이 가장 효과적, 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 다섯째, 치료형 위탁기관의 설치, 지역정신보건센터나 정신과와의 협진체계 등 정신건강 전문가의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잉글랜드 학교에서 위기학생에 대한 교육의 1차적 책임은 학교에 있고 이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학교에는 SENco 등 위기학생을 돌볼 수 있는 전담교사가 배치되어 있고 이들을 세밀히 관찰하고 담임교사와 협업하여 적절한 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학교의 역량을 벗어나는 경우, 정신보건사, 치료상담사, 가족체제치료사, 교육심리치료사 등 전문가를 둔 위탁기관에 의뢰하고 있다.

학생들의 정신건강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교사들이 다룰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교사들이 쉽게 정신과적 문제로 명명할 수도 있고 정신과적 문제인 것들을 교사들이 끼고 있을 수도 있다. 영국의 학부모 자녀들을 PRU에 의뢰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지만 학부모와의 지속적인 접근을 통해 이를

3) 윤철경 외(2017),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Ⅱ, p.383.

4) 윤철경 외(2017),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Ⅱ, pp.34-35.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다. PRU는 이런 것을 다룰 수 있는 충분한 전문인력을 두고 지역병원과 협진체계도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각 시도마다 차이가 있으나 시도의 학업중단 예방센터, 교육복지센터, 교육(지원)청의 Wee센터, 자치구 산하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다양한 기관들이 있으나 각 부처마다 조금씩 투자하다보니 어느 것 하나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Wee Center와 Wee School이 확대 운영된다면 해당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로서는 학교폭력문제에 대한 대응에 치우쳐 있고 시설과 전문 인력도 너무 부족하다. 치료적 접근이 필요한 위기 학생 개인에 초점을 둔 치료형 교육기관의 설치, 공립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이러한 모델의 학교를 설치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 윤철경 (2017). 국외출장복명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nypl.re.kr/brdartcl/boardarticle/view.do?menu_nix=n5GW3GU0&brd_id=BDIDX_4sSA7SdKjyAGM83R7768s7.
- 윤철경, 성윤숙, 최홍일, 유성렬, 김강호 (2017).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연구Ⅱ.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설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 (2018). 2018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주요 선진국 정책탐방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세종: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



교육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설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6층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전화 044-415-2153 팩스 044-415-2349 www.gotoschool.re.kr